

#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2월 1주~12월 2주)

## □ 정책 및 시장 동향

###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폴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 11월에도 전반적 안정세 유지(12.2)
  - 바르샤바 평균 평당 가격은 18,200 즈워티로 전월 대비 1% 하락, 이는 15,000 즈워티 이하 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됨
  - 크라쿠프, 트리시티, 우치, 포즈난, 브로츠와프 등 주요 대도시는 전월 대비 가격 변동이 미미해, 통계상 안정적 흐름이 유지됨
  - 시장 분석에 따르면, 각종 판촉 활동 및 특가 분양 등이 실제 시장 가격의 변동 폭을 통계에서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 체감 가격 변화가 공식 통계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
  - 지역 간 가격 격차는 완화되는 추세로, 트리시티의 연간 평균 평당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1%에서 올해 11월 5%로 둔화
  - 연간 기준 변동률은 우치 -1%, 크라쿠프 +1%, 바르샤바·브로츠와프·포즈난 3~4% 상승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또는 안정세를 나타냄
  - 단기적 가격 조정 요인으로 인해 일부 수요자가 체감하는 가격 수준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됨
- 정부 2026년 예산안 수정, 대통령실, 상·하원 등 주요 기관 예산 감축(11.20)
  - 의회 공공재정위원회는 2026년 예산안 109건 수정안 중 하원 과반 연합이 제출한 1건을 채택, 주요 기관 예산 재배분 도입
  - 대통령실 예산 약 1,275만 즈워티, 하원(Sejm) 약 1,660만 즈워티, 상원(Senat) 약 2,820만 즈워티 감액
  - 대법원·최고행정법원·회계검사원 등 사법·감사기관과 인권옹호관실, 국가방송위원회, 개인정보보호청, 국가선거국 등 독립기관 예산도 감축

- 국가노동감독청, 국립기억연구소, 법무부 등 공공기관 예산도 감액 대상 포함
  - 감액분 약 567백만 즈워티는 고등교육·과학 연구기관, 국가안보국, 정보기관, 동부 폴란드 관광 진흥, 특별목적 예비비 등 특정 분야로 재배분
  - 총지출 9,189억 즈워티, 적자 2,717억 즈워티, 세입 6,472억 즈워티 전망. 국방·보건·교통 인프라 분야에 우선 배정, 국방은 GDP 대비 4.81%, 보건은 6.81% 수준
  - 헌법상 예산안은 하원 제출 후 4개월 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며, 미서명 시 대통령은 14일 내 의회 해산 가능, 헌법재판소 심사 시 2개월 내 판결 권한 부여
- 폴란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 4.00%로 조정(12.3)
- 폴란드 중앙은행(NBP) 통화정책위원회(MPC)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4.00%로 0.25%포인트 인하, 변동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 및 하락세인 물가 반영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월 2.8% 대비 하락하였으며, 핵심 물가(Core Inflation)도 하락하며 통화정책 효과가 가격에 반영됨
  - MPC는 물가 상승 위험 요인으로 임금 상승, 에너지 가격, 재정정책 (대규모 재정 적자), 경제 수요 회복, 글로벌 물가 상황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이번 금리 인하는 지속적 인하 사이클이 아닌, 하락하는 물가 수준에 맞춘 조정 성격으로, 기준금리와 목표금리 간 차이는 이전 달보다 확대됨
  - NBP는 중기적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의지를 강조하며, 필요 시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도 언급
  - 주요 선진국 경제는 2025년 3분기 경제활동 성장률이 전 분기와 유사하며,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유럽 중앙은행(ECB) 목표에 근접, 미국은 연준 목표를 상회
  - 자국 내 경제는 2025년 3분기 GDP가 전년 대비 3.8% 성장하여 2분기

### 3.3%보다 개선

- 내수 수요 증가, 소비와 투자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10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건설·조립 생산도 전년 대비 증가
  - 다만 기업 부문에서는 고용 감소와 임금 상승률 둔화가 관측됨
- 폴란드 창고·물류 시장, 수요 여전히 강세(12.5)
- 2025년 1~3분기 총 450만m<sup>2</sup> 창고 임대가 완료되었으며, 전년 대비 20% 증가
  - 투자 금액 873백만 유로로 전년 대비 18% 증가, 창고 부문이 폴란드 전체 투자금액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현대식 창고 공실 면적은 3,640만m<sup>2</sup>, 신규 공급 155만m<sup>2</sup>, 건설 중 150만m<sup>2</sup>으로, 주요 개발 지역은 바르샤바·트리시티·上실레지아로, 공사 중 55% 선임대 계약 확보
  - 임대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요 집중 지역은 바르샤바, 중부 폴란드, 브로츠와프로 이 세 지역이 전체 임대량의 60% 차지
  - 산업별로는 물류 및 유통 중심이나, 경공업 및 제조업 비중도 16%로 증가
  - 공실률은 3분기 종료 시 8.21%로 안정적으로 유지됨
  - 임대료는 대형 물류시설이 3.8~5 € / m<sup>2</sup>, 도심형 창고 5~7.5 € / m<sup>2</sup>이며, 바르샤바와 크라쿠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서부 우크라이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전년 대비 최대 30% 상승(12.2)
- 서부 우크라이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최근 1년간 큰 폭으로 상승,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트란스카르파티아(Transcarpathia) 지역 상업용 부동산 평균가는 전년 대비 3% 상승한 135,000달러로, 서부 우크라이나 내 가장 높은 수준
  - 가격 상승 요인은 지역 기업 수요 지속, 국제 국경 인접성, 전쟁으로 인한 동부 지역 기업 유입 등으로 분석
  - 이바노프란키우스크(Ivano-Frankivsk) 지역에서는 미보수 상태 상업

공간이 평방미터당 400달러, 완비 매물은 약 1,800달러, 도심 중심가 또는 신축 건물은 1,500~1,800달러 수준, 전년 대비 20% 상승

- 우즈호로드 지역은 미보수 매물은 1,500달러, 도심 지역 개보수 완료 매물은 2,000달러 이상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
- 그 외 고가 지역은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지역 10만 달러, 리비우 지역 98,000달러, 리브네 지역 85,000달러
- 저가 지역은 테르노필 지역 58,000달러, 체르노브치 지역 69,000달러 수준으로 집계

○ 우크라이나, GDP 연동 채권 \$26억 규모 유로본드 교환 제안(12.3)

- 우크라이나 정부는 2,590백만 달러 규모의 GDP 연동채권을 1.34 비율로 2030~2032년 만기 Series C 유로본드로 교환할 것을 제안
- 해당 유로본드는 연이자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2027년 2월까지 연 4%, 2029년 8월까지 연 5.5%, 2032년 2월까지 연 7.25%로 책정
- 11월 25~30일 협상 기간 동안 GDP 연동채권 보유자 대표 특별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측은 교환 조건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달성, 12월 5일까지 교환 각서 개정 반영 예정
- 조기 참여(12월 12일까지) 투자자에게는 명목 증권 1,000달러당 7% 현금 보상금 지급, 12월 13~17일 참여 시 4.5% 현금 우대 조건 적용
- 교환 미참여 보유자는 2024년 유로본드 구조조정 시 발행된 Series B 해외채권을 총계수 1.36으로 배정
- 12월 1일 기준 GDP 연동채권 가격은 전일 대비 0.66% 상승, 액면가 대비 92.15% 수준

○ 키이우 최대 쇼핑몰 ‘걸리버’, 법적 분쟁 속 단계적 재개장(12.3)

- 우크라이나 국영 은행 오샤드방크(Oschadbank)는 키이우 최대 쇼핑·엔터테인먼트 센터인 걸리버(Gulliver)몰을 12월 12일부터 하층 2개 층을 우선적으로 재개장한다고 발표
- 해당 쇼핑센터는 10월 31일 전면 폐쇄되었으며, 약 250개 매장과 대형 슈퍼마켓 실포(Silpo)가 이용 중단

- 은행 측은 전 소유·관리사인 Three O가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여 인수 과정을 방해했다고 설명
- Three O는 약 1년간 대출 의무 불이행, 걸리버 몰은 오샤드은행에 537백만 달러, 우크렉심은행(Ukreximbank)에 138백만 달러를 담보로 제공
- 7월 법원 판결로 몰과 관련 장비·부지가 은행 소유로 이전, 이후 오샤드방크와 Three O 간 소송 및 분쟁 지속
- 오샤드방크는 해당 쇼핑센터 재개장을 통해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을 강화하고, 채권자 보호와 은행 시스템 안정, 예금자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
- 동시에 전쟁 피해 기업 대상 대출 구조 조정 사례도 언급하며, 부도 채무자는 여전히 상환 의무가 있다고 강조
- 은행은 쇼핑센터 재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평가 중이며, 나머지 총 재개장은 전 소유자의 장비 훼손 및 관리 소홀 문제 해결 후 진행 예정

○ 키이우 지역서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12.3)

- 우크라 특수차량 생산 기업 부드슐리아크마시(Budshlyakhmash)사는 키이우주 브로바리(Brovary)에 신규 제조 복합단지 건설
- 2026년 중순부터 3,000m<sup>2</sup> 규모 생산시설에서 자동차 프레임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산업용 특수 차량 및 장비의 현지화율을 75%까지 확대 예정
- 올해 공공 조달 기준은 우크라이나산 부품 최소 25% 사용, 2026년부터는 최소 현지화율이 30%로 상향
- 부드슐리아크마시는 덤프트럭, 쓰레기차, 트럭 크레인, 견인차 등 다양한 장비를 생산하며, 2025년 월 평균 70대 생산
- 현재 장비 평균 현지화율은 40~60%, 프레임 생산 시작 후 바퀴와 차축을 포함한 핵심 부품 생산도 계획됨
- 내년 봄 브로바리에 신규 생산 부지 개발 예정, 기계공업 클러스터를 갖춘 산업단지로 확장

- 총 11헥타르 부지에 약 40,000m<sup>2</sup>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며, 총 투자액 약 4,000만 달러로 예정

###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 Grupa Azoty Polyolefins, 구조 조정 및 파산 신청(11.28)

- 11월 28일, Grupa Azoty는 자회사 Grupa Azoty Polyolefins가 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동시에 Szczecin-Centrum 지방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출했다고 발표
- 구조조정 관리감독자는 AMS Restrukturyzacja가 수행하며, 파산 심사는 구조조정 승인 신청 제출 또는 절차 종료 시까지 일시 중단(Stay)상태로 진행
- 구조 조정 개시 사유로는 GAP가 재무상 의무 이행 불능 상태에 직면했으며, 기존 회복 수단으로는 운영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언급
- Polimery Police 프로젝트 설비 결함으로 인해 생산 및 주요 수익이 중단되었으며, 설비 완공 및 결함 보수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태
- 이번 절차는 10월 15일 Orlen의 비구속 지분 인수 제안과 연계되며, 채권자 합의를 통해 인수 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음
- GAP 경영진은 구조조정을 통해 채권자 결정권을 공식화하는 한편, 파산신청과 병행하여 구조조정 실사(due diligence)도 이행하겠다고 언급

#### ○ 폴란드, 바르샤바 철도 허브 현대화 진행(11.29)

- 바르샤바 주요 철도 허브인 Warszawa Zachodnia(바르샤바 서부) 역에 새로운 지하 통로가 개통되며 현대화 프로젝트가 완료됨
- 정부는 철도 인프라 투자와 역 개선을 통해 열차 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올해 Warszawa Wschodnia(동부)역 개보수를 위한 40억 즈워티 규모 입찰이 시작
- 현대화 프로젝트에는 수도권 대중교통과 장거리 열차를 함께 이용

## 할 수 있는 공동 승차권 도입도 포함

- 해당 프로젝트에는 EU 기금이 투입되었으며, 역 시설 15억 PLN, 주변 선로 5억 PLN, 지하 트램 시설 약 10억 PLN이 배정
  - 바르샤바 시장 트샤스코프키는 중앙정부와 도시 당국 간 EU 기금 활용 협력 사례라고 언급
  - PKP PLK 최고 책임자 비보르스키는 해당 역이 하루 1,100회 이상 열차를 처리하며 국내 전체 여객 열차의 약 20%가 정차하는 핵심 허브라고 설명
  - 내년 계획에는 Warszawa Wschodnia 역 개보수 착수, Otwock 통근선 개선, Warszawa Gdańska 역 지하 통로 신설이 포함됨
  - 현재 Warszawa Wschodnia(동부역)와 Zachodni(서부역)를 연결하는 중앙 횡단선 개보수 및 바르샤바 방사형 노선의 선로 용량 확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
- 폴란드, 바르샤바 - 베를린 기존 철도 연결 개선 추진(11.30)
- 말레프라부 차관은 EU의 2040 고속철도 전략 발표 직후 독일과 연결되는 신규 고속철 노선보다 기존 철도망 개선을 우선하겠다고 언급
  - EU 집행위는 “Y”라인(바르샤바 - 우치 - 포즈난/브로츠와프) 구축을 통해 2040년 바르샤바 - 베를린 소요 시간을 약 45분 단축할 것으로 전망
  - 차관은 신규 고속철 노선 검토는 병행하되, 우선순위는 현행 노선의 개선이라고 강조함
  - 단기 개선 가능 노선으로 Piła - Krzyż - Gorzów - Kostrzyn 구간을 지목했으며, 해당 노선이 비전철·단선 구간이 많아 병목이 심각한 만큼, 전철화·복선화를 통해 즉각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
  - 포즈난 - 베를린을 잇는 E20 구간의 전면 개보수는 배제되었으며, 현재 개선 중인 Rzepin - Frankfurt(Oder) 병목 구간만 정비 대상임
  - 12월부터 바르샤바 - 포즈난 - 베를린을 연결하는 7번째 신규 열차가 투입되어 양국 간 노선이 2시간 간격의 정기 패턴 운행 체계로 전환될 예정

- “Y”라인의 독일 국경 방향 연장 여부는 2026년 ZSK(통합철도망) 연구 결과 이후 결정될 예정이며, 동 연구는 CPK·PKP PLK·도시 지역개발연구소가 공동 수행할 예정임

- **Ocean Winds, 폴란드 첫 해상풍력 사업 건설 단계 진입(12.1)**

- EDP Renewables - ENGIE 합작사인 Ocean Winds가 발트해 폴란드 EEZ 내 390MW 규모 BC-Wind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 약 20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확보 및 금융종결에 도달
- 전체 금융의 약 1/3은 EIB(유럽투자은행)이 지원, ICO(스페인 국책 은행) 및 13개 상업은행이 참여
- BC-Wind는 지멘스가메사 14MW(최대 출력 시 15MW) 터빈 26기로 구성되며, 폴란드 북부 Krokowa·Choczewo 인근 해안에서 약 23km 떨어진 해상에 설치될 예정
- 2028년 첫 전력 공급이 목표이며, 완전 가동 시 약 50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
- 2026년부터 육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P&Q사가 변전소 및 송출 케이블 노선 설계를 담당, Tele-Fonika Kable(TFK)가 해저 케이블 제작·설치 수행 예정
- 해당 프로젝트는 폴란드 항만을 100% 활용하는 첫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기초 구조물은 Świnoujście 항만, 터빈은 Gdańsk 항만에서 배치 및 연계 관리될 예정
- 운영·유지보수 기지는 Władysławowo에 구축 예정임

- **Westinghouse - Bechtel, 폴 신규 원전 건설 초기 단계 진척(12.2)**

- Westinghouse-Bechtel 컨소시엄과 폴란드 국영 원자력 발전사 Polskie Elektrownie Jądrowe(PEJ)가 Choczewo(총체보) 지역에 3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EDA(Engineering Development Agreement, 설계개발협약)를 체결
- 이번 EDA는 부지 개발, 규제 문서 작성, 지질 조사 등 핵심 준비 계획을 규정하며, 향후 EPC 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함

- 프로젝트는 폴란드 및 미국 간 장기적 원전 협력의 시작을 의미함
  - 건설 과정에서 지역 인력 우선 채용과 미국 원전 전문 기술 활용 예정
  - 미국은 최근 Amazon의 60 MW 소형 모듈 원전 투자 등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주도적 입지를 강화 중
  - PL-USA 컨소시엄은 지질 조사와 추가 엔지니어링 작업을 포함한 다음 단계 진행 예정
- 금호타이어, 첫 유럽공장 오풀레 지역 선정, 2028년 가동 목표(12.1)
- 금호타이어가 첫 유럽 생산기지로 폴 남부 오풀레(Opole) 지역을 최종 선정, 총 587백만 달러(약 8,606억 원) 투자 계획
  - 인허가 절차 후 2028년 8월 첫 가동 예정이며, 1단계 생산 규모 연간 600만 본으로 출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 증설 가능
  - 유럽은 세계 타이어 소비의 약 25%를 차지하며, 금호타이어 매출의 26.6%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 등 글로벌 OEM이 집중된 지역으로 평가됨
  - 현지 공장 설립으로 안정적인 판매 기반 확보와 고부가가치(HVP) 타이어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 유럽 OEM 대상 신규 OE 공급 기회 확대를 기대
  - 관계자는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품질·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가치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
- Zabrze 지역 열병합 발전소, 바이오매스 전환 통해 탈탄소화 추진(12.3)
- 핀란드 에너지 설비기업 Valmet은 폴 Zabrze 지역의 Fortum 복합 열병합(CHP) 발전소의 석탄 보일러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연료 개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발표
  - 개조 범위는 기존 순환유동층(CFB) 보일러의 석탄 연료 공급 시스템을 산림 바이오매스 및 RDF(Refuse-Derived Fuel, 폐기물 고형연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포함함
  - 이번 프로젝트는 북유럽 에너지 기업 Fortum의 8,500만 유로 투자 계획의 일환이며, 현행 Zabrze 발전소는 석탄 60%, RDF 40% 혼합

연료를 사용, 개조 후 석탄은 전량 바이오매스로 대체

-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직접 화석 CO<sub>2</sub> 배출량 약 28만 톤 감소, 석탄 기반 발전 용량 0.1GW 축소 예상
- Valmet은 기존 석탄 보일러 바이오매스 전환 경험을 활용해 연료 공급 시스템, 부식·보일러 오염 방지 첨가제 공급 시스템, 저부하 RDF 연소 지원용 오일 버너 설계 등 수행
- Fortum의 목표는 탈석탄, 지역 공기질 개선, 안정적 난방 비용 제공 등 지역사회 요구와 기후정책 목표 달성
- Zabrze CHP 개조 공사는 2027년 4분기 가동 예정이며, 이는 Valmet의 2025년 4분기 수주에 포함
- Fortum은 폴란드에서 Częstochowa와 Zabrze 두 개 CHP 발전소를 운영하며, 고효율 열병합 발전과 난방 배급, 전기·가스 소매 사업을 수행 중

○ 폴, 우크라 지원 핵심 Rzeszów-Jasionka 물류 허브 재가동(12.3)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Rzeszów-Jasionka POLLOGHUB 물류센터를 방문, 재가동 및 완전 운영 개시를 기념함
- 해당 허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NATO 동부방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40여 개국 기부 물자의 95% 이상이 이곳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짐
- 허브에는 약 500명의 병력이 배치, 절반 이상은 영토방위군 소속
- 대통령은 “폴란드 예산과 병력 투입으로 동부 방어 유지가 가능하며, NATO 내에서 폴란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언급
-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째렌스키와의 회담을 기대하며, 양국 현안 해결 및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
-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전략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양국 간 대칭적 관계와 상호 인정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 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우크라,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올해 약 510억 흐리우냐 지급(12.1)
  - 우 국영 전력 구매기관 Guaranteed Buyer는 1~10월 재생에너지 부문에 총 507억 흐리우냐(약 13억 달러)를 집행했다고 발표
  - 이 중 2025년 전력 구매분 지급액 434.9억 흐리우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과거 미정산분 지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24년분 48.2억, 2023년분 15.5억, 2022년분 8.7억, 2021년분 1천만 흐리우냐가 지급
  - 각 정산율은 2025년 93.2%, 2024년 89.3%, 2023년 99.2%, 2022년 65.7% 수준을 기록함
  - 올해 총 622만 MWh의 재생에너지가 구매되었으며, 전력 구성은 태양광 93.14%, 풍력 2.73%, 바이오에너지 2.4%, 수력 1.72%로 태양광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EU 재생에너지 규정에 부합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에너지 분야 15개 단계 이행, 지원체계 계획, 에너지 공동체 조약 준수에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됨
- 불가리아, 우 재건 지원을 위한 판유리 공장 건설 추진(12.1)
  - 불가리아 Technoglass Group과 독일 HORN Glass Industries AG가 협력하여 3억 유로 규모의 판유리 생산공장을 불가리아에 건설할 계획
  - 완공 시 일일 800톤 생산 능력을 갖춘 유럽 최대급 규모의 공장이 될 것으로 전망
  - 현재는 설계 단계에 있으며,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함
  - 공장은 부르가스(Burgas)에 위치할 예정으로, 철도망·대형 항만·국제 공항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가 입지 선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생산된 판유리는 대부분 수출용이며, UAE·나이지리아 등과는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함
  - 특히 우크라이나가 주요 수요처로, 매년 3,000만 m<sup>2</sup> 이상의 유리를 공급할 계획임

- 우크라이나의 건설사·유통업체·창호 제조사들과의 사전 계약도 이미 체결되었으며, 전후 재건 시장을 전략적으로 겨냥한 프로젝트로 평가
- 우크라이나, 최초 유료 고속도로 PPP 방식 개발 추진(12.2)
  - 우크라이나 정부는 볼린주 코벨(Kovel)에서 우크라 - 폴란드 국경 야고딘 - 도로후스크(Yagodyn - Dorohusk) 검문소까지 연결되는 국가 최초의 유료 고속도로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본 사업은 단순 도로 보수가 아닌 전면 재건 및 4차선 확장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는 최초의 민관협력(PPP) 기반 도로 개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됨
  - 폴란드도 해당 국경 구간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코벨 지역은 주요 철도 및 도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위치로, 국경 간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
  - 현재 코벨에서 국경 구간까지 여러 대안 경로가 검토되고 있으며, 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운영권 양허 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이 맡을 예정임
  - 유료 고속도로 노선은 교통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재정적 타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경로를 중심으로 설정될 예정임
- EU, 향후 2년간 우크라 지원 900억 달러 조달 방안 제시(12.3)
  - EU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은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
  - 첫 번째 방안은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우크라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 동의 필요
  - 두 번째 방안은 장기간 논의 중인 '배상금 대출'(reparations loan)로,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며, 상환 의무는 러시아가 우크라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발생
  - 두 번째 방안 시행 시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 필요
  - 집행위원장은 이번 자금이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

- EU는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재정 필요의 약 2/3(약 900억 유로)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 및 국제기관이 부담할 예정
  -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가 2026~2027년 동안 약 540억 유로 지원이 필요하며, 군사·재정 수요를 합치면 EU 추정 약 1,350억 유로라고 발표
  - 자금 지급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는 민주적 규범 준수, 법치주의, 반부패 노력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은 단계적으로 진행
  - ‘배상금 대출’ 방안은 벨기에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법적·재정적 위험이 제기되었으나, 집행위원회는 벨기에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
  - EU 회원국들은 향후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12월 18~19일 정상회담에서 최종 방안 채택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예정
- 우, 키이우 지역 TR FORGE 산업단지 등록·개발 계획(12.5)
- 우크라이나 내각은 키이우주 르지시치우(Rzhyshchiv)시에 위치한 TR FORGE 산업단지를 공식 등록
  - 사업주인 Eco Green Energy는 약 10헥타르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임
  - 총 567.9백만 흐리우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책정되었으며,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병행될 예정임
  - 산업단지에는 건축자재·금속 구조물 등 건설 관련 제품 생산 기업의 입주가 계획되어 있음
  - 해당 산업단지를 통해 약 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과학·기술 기반 활동도 병행될 전망
  - 개발 목표는 키이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매력도 제고, 재건에 필요한 자재 생산 기반 확충으로 설정되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내 등록 산업단지는 현재까지 총 113개임
- 뉴질랜드·호주, 非NATO 국가 중 최초로 PURL 프로젝트 참여(12.5)

- 뉴질랜드와 호주가 NATO의 美산 무기 우크라이나 지원 구매 프로그램인 PURL 참여를 결정함, 뉴질랜드는 1,500만 달러 지원을 제공함
- 캐나다·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독일 등 NATO 회원국들이 추가 지원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총 50억 달러 마련 목표가 설정됨
- 루터 사무총장은 내년부터는 월 10억 달러 수준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은 그리스에도 참여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그리스는 재정적 제약과 “민감한 균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
- 이탈리아는 미국의 평화 중재 기조 속에서 PURL 참여를 중단,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관련 정부령 승인도 2026년으로 연기됨

## □ 주요 프로젝트 동향

### ① 종합계획수립(마스터플랜,MP) 사업

#### 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 < 사업 개요 >

- (발주처) 해외건설협회, KIND, 태웅로직스
- (용역사)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지평
- (용역비) 730백만원
- (용역기간) 2025.2.~2025.12(304일)
- (추진현황) '25.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  
'25. 3월 현지 착수보고  
'25. 6월 중간보고회 개최  
'25. 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사업주 간 투자구조 및 조건 협의

#### ② 6대 선도 프로젝트(참고)

###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

####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 사업 개요 >

- (사업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업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25. 10월 Orlen,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 (주요동향) 현지 SPC (Grupa Azoty Polyolefins S. A.),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11.28)

\* 폴란드 법상, 두 신청 동시 접수 시, 구조조정 신청이 우선 심리되고, 파산 신청은 중단

## 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

### < 사업 개요 >

- (사업 주) 베올리아, KIND, 남부발전
- (사업 비) USD 480백만
- (사업내용) 폐기물 연20만톤 처리, 전기 18.6MWe 및 열 57 MWt생산
- (추진현황) '25.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  
'25.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  
'25. 5월 Non-binding Offer 제출 완료(남부발전)  
'25.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26.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

- (주요동향)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

## ③ 폴란드 바르샤바 단독 주택 단지 개발사업

### < 사업 개요 >

- (사업 주) GS건설, Cordia, KIND
- (사업 비) PLN 83.34백만
- (사업내용) 총 연면적 5,254m<sup>2</sup>, 중형(수평분리) 및 대형주택(수직분리) 36세대 건설
- (추진현황) '25. 2월 GS건설-Cordia 공동개발 논의  
'25. 3월 GS건설, KIND向 사업참여 요청  
'25.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25. 9월 GS건설-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25. 11월 투자심의회 부의

- (주요동향) 12월 이사회 부의 준비 중

##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

### < 사업 개요 >

- (사업 주) LX판토스, KIND, PIS펀드
- (사업 비) € 129.7백만 (약 2,075억원)
- (사업내용) 총면적 108,977m<sup>2</sup> 규모 물류센터 5개동(Phase I: DC 1·2동, Phase II: DC 3,4,5동) 건설
- (추진현황) '24.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  
'25.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25.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25. 12월 KIND 투자심의 및 금융종결 /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26.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

- (주요동향) 12월 투자 심의 위원회 및 이사회 부의 준비 중

## 참고

##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li> <li>(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li> </ul>	KIND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li> <li>후속사업(디지털교통플랫폼) 2027 국토교통 ODA 추진</li> </ul>
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li> </ul>	K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4월4주)</li> <li>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li> </ul>
보리스 필항 현대화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li> </ul>	한국 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li> <li>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li> <li>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24.12월), 최종보고('25.12)</li> </ul>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li> </ul>	환경산업 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7월)</li> <li>* 환경부 F/S 지원사업</li> </ul>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li> <li>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li> </ul>	수자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 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6년 3분기)</li> </ul>
철도노선 고속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 키이우~풀 바르샤바 구간(919km) 중 우크라 구간(580km)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 우크라는 철도 운행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li> </ul>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11월)</li> <li>* 외교부 ODA 지원사업</li> </ul>

2025.12.8. KIND 폴란드 사무소

## 1 개요

- 2025년 11월 중순, 미국이 제안한 28개 조항의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유출 및 공개되었으며, 해당 초안은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와 군사력 제한 등 내용을 포함하여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이에 유럽E3(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안에 대한 28개 반제안 (Counter-Proposal)을 마련하여 공개하였음
- 반제안이 공개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025년 11월 23일~24일 제네바 협상을 통해 수정된 19개 조항의 새로운 평화안을 도출하는 중

## 2 미국의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한 유럽의 반제안 전문

- 유럽 E3(영국, 독일, 프랑스) 28개 반제안 전문

< 미국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한 유럽의 반제안 전문>

1. 우크라이나 주권 재확인
  -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명확히 재확인되어야 한다.
2. 러시아·우크라이나·NATO 간 비(非)공격 협정 체결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NATO 간 완전한 비공격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난 30년간 존재한 모든 모호성은 해소되어야 한다.
3. (미국 원안 3번 삭제)
  - \* 원안에는 “러시아는 이웃국가를 침공하지 않고 NATO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반제안에서는 삭제
4. 평화협정 체결 후 러시아·NATO 대화
  - 모든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긴장 완화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안보와 향후 경제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
5.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안보 보장 제공
6. 우크라이나 군사력 제한
  - 평시 군사력은 최대 80만 명으로 제한

## < 미국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한 유럽의 반제안 전문>

### 7. NATO 가입 조건

- NATO 가입은 NATO 회원국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현재 합의는 존재하지 않음

### 8. 평시 NATO 주둔 제한

- NATO는 평시 우크라이나에 자국 지휘 하의 병력을 상시 주둔시키지 않는다.

### 9. 폴란드에 NATO 전투기 배치

### 10. 미국의 방위보장 (제5조 유사)

- 보장에 대한 미국의 보상 요구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경우 보장 권한 상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과 모든 글로벌 제재 재가동, 신규 영토 인정 및 협정 관련 혜택 모두 철회

### 11. 우크라이나 EU 가입 가능성 및 단기 유럽 시장 우대 접근 제공

### 1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글로벌 재건 패키지

- 우크라이나 개발기금 설립 : 기술, 데이터센터, AI 등 성장 산업 투자
- 미국과 공동으로 가스 인프라 복구, 운영
- 전쟁 피해 지역 재개발
- 인프라 개발, 광물·자원 개발
- 세계은행 특별 금융 패키지로 재건 가속

### 13. 러시아 점진적 세계 경제 재통합

- 제재 완화 단계적 논의
- 미국-러시아 장기 경제협력 협정 추진 : 에너지,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희토류, 북극 공동 프로젝트 등
- 러시아 G8 복귀 초청

### 14. 우크라이나 완전 재건 및 재정 보상

- 러시아 국유자산 동결, 피해 보상 시 해제

### 15.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참여 공동 안보 태스크포스 설립

- 협정 이행 및 조항 준수 감독

### 16. 러시아 비공격 정책 법제화

-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공격 조항 법제화

### 17. 핵 확산 방지 및 통제 조약 연장

- 미국과 러시아 합의, Fair Start 포함

### 18. 우크라이나 비핵국가 유지

-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

### 19. 자포리자 원전 재가동 및 발전량 러-우 50:50 분배

- IAEA 감독 하에 운영

### 20. 우크라이나 종교·언어 소수자 보호 EU 규정 준수

### 21. 군사적 점령 영토 탈환 금지

- 영토 교환 협상은 접촉선(Line of Contact) 기준 시작

### 22. 미래 영토 합의 후 강제 변경 금지

- 위반 시 안보 보장 적용 불가

### 23. 드니프로 강 및 곡물 수출 자유 보장

### < 미국 우크라이나 평화안에 대한 유럽의 반제안 전문>

#### 24. 인도적 위원회 설립

- a. 모든 포로·시신 교환(All for All 원칙)
- b. 민간인 억류자, 인질 포함 귀환, 아동 포함
- c. 가족 상봉 프로그램
- d. 분쟁 피해자 지원 조치

#### 25.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체결 후 최대한 빨리 선거 실시

#### 26. 분쟁 피해자 지원 조치 포함

#### 27. 법적 구속력 보장

-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감독, 위반 시 제재
-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28. 모든 당사자 합의 후 즉시 휴전 발효

- 휴전 조건, 모니터링 등은 미국 감독 하 합의

## 3 우크라이나 평화안 추진 및 협상 경과

### □ 미국 주도 평화안 초안(28개 조항)

○ 작성(유출)시기 : 2025년 11월 중순

○ 제안 주체

- 美특사 Witkoff, 대통령 고문 Kushner가 개발하였으며, 러 외교관 Dmitriev와 우 국가안보보좌관 Umerov와의 협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 승인

○ 주요 내용

-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완충지대 설정
-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안보 보장(우크라이나 비용 부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및 유럽에 대한 불가침 정책 법제화
- 전쟁 당사자에 대한 사면
- 러시아 점령 지역(크림, 루한스크·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전체 양보
- 우크라이나 군사력 최대 60만명으로 감축
- NATO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

- 비핵화, 비군사화, 민간인·포로 교환 포함
- 공식 입장 및 평가
  - 우크라이나는 해당 평화안이 항복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강력 비판,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 협상팀과 즉각 접촉해 시정을 요청
  - 유럽 연합 및 동맹국은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사 표명
  - EU 집행위원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은 미국 주도 평화안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침략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언급, 강제적 영토 양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평화협정이 EU의 중심적 역할을 반영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 E3(독일, 영국, 프랑스) 주도 평화안 초안 반제안문 발표

- 발표 시기 : 2025년 11월 23일(미국 초안 유출 직후 주말 발표)
-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 군사력 상한 80만 명 설정
  - NATO 가입 자유 보장
  - 평시 NATO 상설 병력 제한
  -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유럽 공동 안보 Taskforce 구성
  - 러시아 단계적 재통합 및 제재 완화
  - EU 회원국 후보 자격 인정 및 시장 접근 지원
- 공식 입장 및 평가
  - 기존 미국안에서 논란이 된 영토 양보와 군사력 제한 조항이 일부 삭제·조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측과 EU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 했다고 평가

#### □ 19개 조항 평화안 도출(미국-우크라이나 제네바 협상)

- 협상 일시 : 2025년 11월 23~24일
- 협상 대표단

- 우크라이나 : 대통령 비서실장 Yermak, 국가안보보좌관 Umerov
- 미국 : 국무장관 Rubio, 육군장관 Driscol, 고문 Kushner, 美 특사 Witkoff

○ 주요 내용

- 군사력 상한 60만 명 제한 조항 삭제
- 잠재 전쟁 범죄 사면 조항 재검토
- NATO 주둔 제한 일부 조정
- 영토 문제 및 NATO 가입 여부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사항으로 보류

○ 공식 입장 및 평가

- 우크라이나 측은 군사력 제한 조항 삭제와 민감 사안 보류를 통해 일부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미국 측은 러시아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구분	미국 최초안 (11월 중순 유출)	유럽 반제안 (2025.11.23.)	19개 조항 협상 결과 (2025.11.23.~24.)
군사력	우크라이나 군 병력 최대 600,000	우크라이나 군 병력 최대 800,000	군사력 상한 삭제
NATO 관련	헌법에 NATO 가입 포기 명시	NATO 가입 자유 보장, 평시 상설 병력 배치 금지	일부 주둔 제한 조정, NATO 가입 여부 보류
영토 문제	러시아 점령 지역 양보	점령 영토 군사적 탈환 금지, 접촉선 기준 협상	민감한 영토 문제 보류
비핵화·군사화	우크라이나 비핵화, 비군사화 포함	NPT 준수, 핵통제 연장	NPT 준수 유지, 핵통제 연장
포로·민간인	포로 및 민간인 교환 포함	인도주의 위원회 설치, 전원 교환, 가족 재결합	세부 내용 합의 진행, 전쟁 범죄 사면 조항 재검토

## 4 러시아 측 기존 요구사항

### □ 러시아 요구 사항

- 영토 관련
  - 러시아는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 지역과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를 완전히 확보하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전쟁 초기부터 푸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요구사항임
- NATO 관련 입장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평화안 협상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 사안으로 남아 있음
- 군사력 관련 입장
  - 과거 2022년 초기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10만 명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병력 증가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함
- 내부 불확실성
  - 평화안 수정안이 러시아에 불리한 요소를 포함하면서 러시아 정부 내 최종 결정과 동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알려짐

## 5 | 제네바 협상 이후 협상동향 및 전망

### □ 11월 30일 미국-우크라이나 플로리다 회담

- 11월 30일 플로리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 비공개 실무 회담이 진행, 미국 측엔 Rubio 국무장관, 특사 Witkoff와 대통령 고문 Kushner, 우크라 측엔 Umerov가 참여
- 양측 모두 회담을 “생산적”이라 평가했지만, Rubio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
- 회담 이후에도 전화 협의를 통해 평화안 조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은 미국과 협의하면서도 유럽 국가와의 연계 강화 모색

### □ 12월 2일 미국-러시아 모스크바 회담

- 12월 2일, 美 특사 Witkoff와 대통령 고문 Kushner가 모스크바를 방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약 5시간 회담 진행
- 러시아 측은 회담을 “건설적이고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발표

#### □ 러시아 측 반응 및 국제 반향

- 러시아는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점령지 포함)에 대해 “타협 없음(No-Compromise)” 입장을 재확인
- 우크라이나와 EU는 러시아가 실질적 양보 없이 평화 회담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군사·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 중

#### □ 전망

- 플로리다·모스크바 회담 이후에도 핵심 쟁점(영토·안보·점령지 반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간극이 커, 단기간 내 포괄적 평화 합의 도달 가능성은 낮음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중심 협상 이후 돌파구가 없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을 세우고, 유럽을 통해 추가 지지와 보장 확보를 모색 중